

기생충 박멸 0% 운동, 어디까지 왔나

기생충의 感染率이 떨어졌다는데 그것은 사실인가

기생충 감염률은 줄어들고
있다

67년 8월, 보사부에서 발표한 기생충의 공인감염률을 보면 회충 80% 편충 80%, 십이지장충 20%, 동양모양선충 20%의 높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4년후인 1971년 보사부와 기생충박멸협회가 실시한 전국표본실태조사에서는 회충 55%, 편충 65%, 십이지장충 11%, 동양모양선충 7%로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74년 봄에 학생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더욱 감소되어 발표에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물론 통계가 어느 정도

		1967	1971	1974
회	총	80%	55%	43.8
편	총	80	65	34.9
요	총	40	—	0.1
십이	지장충	20	11	0.1
동양	모양선충	20	7	0.04
간디	스토마	15	4.5	0.4
페디	스토마	5	0.1	0.01
사	상	2	—	—
이	질아메바	10	—	—
마	라리아	1	—	—
조	총		2	0.15

정확한 것이냐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아등은 기생충 감염률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경향만은 뚜렷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寄協서 올해 檢便 1500만명, 投藥 800만명에 시행, 성과는 실태조사서 판명

물론 그 첫째는 정부와 기생충박멸 협회가 벌이고 있는 구충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결과라고 말할수 있다. 아울러서 국민소득의 증대로 점차 부유해진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고, 기생충 퇴치를 실행한 결과라고도 볼수 있다.

성과보인 寄協의 업적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올해에만도 14,693,600명에 대한 검편을 실시한다. 전국의 초·중고학생은 전원, 검편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검진도 85,000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일반검진은 집객업소, 산업장 종업원과 공무원이다. 이 수를 모두 합치면 전 국민의 반수 가까이 된다. 국민 두사람 중 하나가 기생충박멸협회의 손길에 닿는다는 얘기로 바꾸어 설명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발전된 양성(陽性) 감염자에게는 투약(投藥)사업을 벌인다. 지금까지 최충약만 7,530,600명에게 먹인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 총국민



기생충박멸협회 가두 검진반이 가두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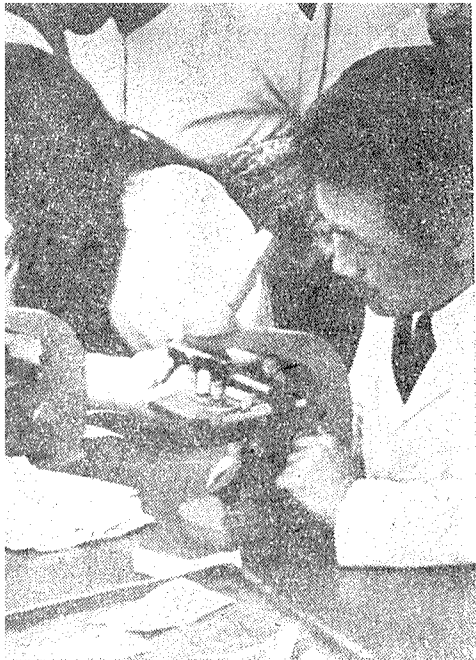
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십이지장충은 138,600명에게 집단 투약을 시행할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이밖에도 특별회계 기금으로 60만명에 대한 검진사업과 33만명에 대한 최충약투약도 시행한다.

만약 이와 같은 규모의 사업을 계속 벌인다면 검편은 2~3년에 전국민에게 한번씩, 투약은 5년에 전국민에게 한번씩 시행하는 결과가 되어, 재감염(再感染)만 막을수 있다면 5

기생충 박멸 6%운동 어디까지 왔나



현장에서 현미경으로 총란의 유무를 검사
판정하는 검사요원들

년후면 기생충 0%가 실현 될수 있음
직 하다.

기생충 0%운동의 문제점

그러나 문제는 것처럼 주먹계산식
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 이유
는 무엇일까.

기생충의 퇴치는 검변이나 투약만
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생충을 근절하기 위한 기본방법
은 이론적으로 3가지가 있다. 즉

① 대변 속에 들어 있는 총란(虫
卵)을 구제한다(糞便처리)

② 대변 속의 총란 제거를 못했더

라도 이 총란이나 유충(幼虫)이 체내
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感染防止)

③ 체내에 침입한 기생충을 약으로
퇴치한다(驅虫).

그러니까 검변이나 투약은 ③의 방
법의 일부에 불과하다. 기생충을 근
본적으로 박멸하기 위해서는 위의 3
개의 방안이 동시 추진이 되어야 한
다. 그러나 아직 국민소득이 낮고,
기생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認識
度)가 낮은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는 분변처리나 감염방지는 실현성이
희박하다.

요컨대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분변처리 시설을 갖추거나, 문화수준
이 높아져서 위생적인 생활이 이루어
기 전에는 0%운동은 먼 거리에 있다.

그러나 검변 투약사업은 활발히 시
행되고 있다. 만약 전국민을 대상으
로 완전한 투약사업이 시행될수 있다
면 0% 목표를 달성할수도 있다.

시급한 국민의 認識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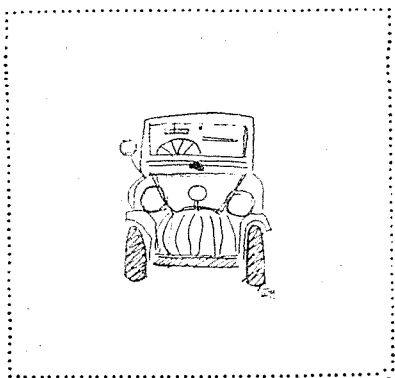
66년에 기생충 질환예방법이 생기고,
각급학교와 유흥업소들의 종업원
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마다 1번
내지 2번의 검변과 치료를 받도록

문제는 糞便처리 感染방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국민 認識개선도 시급

되어 있으며, 분뇨의 사용을 제한하고, 공중변소와 공동우물의 위생적관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생충박멸협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공무원, 사업장, 유흥업소등 집단체제를 갖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는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의 기생충 감염률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으나, 아직 이 협회의 기능은 전국민에게까지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꼭 정부나 기관에서 자기 뱃속에 들어있는 기생충을 퇴치해 주기를 바라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자기의 능력으로도 소액의 경제적부담으로 자신의 기생충을 퇴치할수가 있다. 자기 뱃속의 기생충을 퇴치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다른사람에게 감염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종의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것이다.



● 李于馥(기생충박멸협회 사무총장)씨의 말=기생충의 감염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기생충박멸협회의 사업성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0% 목표는 협회의 기능과 조직과 예산으로서는 감당할수 없는 큰 과제다. 국민의 82.6%가 감염 되어 있는 기생충의 박멸은 전국민이 서로 합심하고 협력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차츰 국민의 인식과 이해가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지 않아 0%의 고지(高地)에 도달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기생충 박멸 6%운동 어디까지 왔나